



폐어구 감긴 돌고래 또 위험신호 보냈다

지난 6일 대정 앞바다 수면 위에서 1~3분간 정형행동 전문가들 “지난 1월 보였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태” 포획 후 선상서 폐어구 제거 방식 신속구조 목소리도

속보=버려진 어구에 몸이 감겨 신음 속에 살아가는 새끼 남방큰돌고래(종달이)가 예전보다 더 심각한 정형행동(이상행동)을 보여 포획 후 폐어구를 제거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포획 과정에서 쇼크사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구조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다큐제주 오승묵 감독과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 김병영 교수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종달이가 또다시 정형행동을 했다.

오 감독이 찍은 영상을 보면 종달이는 이날 잠수를 하지 못하고 홀로 바다를 떠다니며 수면 위에서 1~3분간 가만히 머무는 정형행동을 반복했다. 종달이는 잠수나 유영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수차례 했으며 꼬리 쪽에는 여전히 낚싯줄로 추정되는 폐어구가 감겨 있었다. 정형행동은 동물들이 목적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말한다. 동물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1일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종달이 입과 지느러미, 꼬리 쪽 등에 폐어구가 걸려 있었다.

폐어구에 몸이 걸려 살아가던 종달이는 올해 1월 21일 첫 정형행동을 보였다. 당시 종달이는 한자리를 빙글빙글 맴돌며 유영했다.

오 감독은 “(한자리를 맴돌던 첫 정형행동 때보다) 움직임이 크게 둔해진 상태”라며 “예전에는 종달이가 같은 돌고래 무리를 발견하면 금방 뒤쫓아가 합류했는데 지금은 쫓아가려해도 체력적 한계로 포기한다. 행동 반경도 많이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핫핑크돌핀스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하 구조단)은 올해 1월 29일 배를 타



지난 6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관찰된 종달이. 폐어구에 몸이 걸려 수개월째 신음 속에 살아가는 종달이는 이날 홀로 바다를 떠다니며 수면 위에서 1~3분간 가만히 머무는 정형행동을 보였다. 다큐제주 오승묵 감독 제공

고 종달이에게 접근해 구조용 갈고리로 몸에 감긴 폐어구 일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꼬리 쪽을 칭칭 휘감고 있는 나머지 어구는 제거되지 못해 종달이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 감독과 김 교수는 이제는 종달이를 포획해 어구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했다.

김 교수는 “종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에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며 “포획 후 선상에서 어구를 제거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감독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구조에 나서

야 한다”며 “포획 방안도 고려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조단에 참여하고 있는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포획 방안도 이미 대안으로 수립해 놓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이 방안이 옳고, 저 방안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그물로 포획하려면 배 여러 척을 동원해 돌고래를 수심이 얇은 바다로 몰아야 하는데 건강상태가 안좋은 야생 돌고래는 이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쇼크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돈 든 가방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임신부 도움 요청받은 경찰관 25분 만에 해결

현금 70만원이 든 가방을 분실한 임신부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가방을 되찾았다.

지난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40분쯤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성환 경위와 고희정 순경은 제주시청 인근에서 등굣길 순찰근무를 하던 중 40대 임신부 A씨가 다급히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김 경위와 고 순경에게 다급하게 다가와 “현금 70만원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급히 포털사이트를 통해 A씨가 탔던 버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버스 기사와 연락해 A씨의 가방이 아직 버스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버스 하차 지점인 제주공항으로 이동, A씨에게 잃어버린 가방을 건네줬다. A씨가 가방을 잃어버린 지 25분 만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직장 인근까지 데려다줬다.

A씨는 “소중한 돈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제주해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우리수역내 중 어선 불법조업 성행 우려”



제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2척식 저인망 어선 A호(11t·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제주도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80km 해상에서 어귀, 가자미 등 5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호는 현장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중국어선의 휴지기 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성행이 예상돼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일지 확보와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제주공항 배전실서 연기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지하 1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38분쯤 제주국제공항 지하 1층 배전실 부스덕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

차량 13대와 소방관 12명을 투입했으나,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연 소화된 상태였다.

다행히 불이 난 곳은 공학 이용객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피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hakch@halla.com

구좌서 상괘이 사체 발견

제주시 구좌읍 해안에서 멸종위기종인 상괘이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 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에서 상괘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안 쓰레기 정화활동을 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상괘이는 길이 약 165cm, 둘레 약 100cm로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불법 포획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기자



묘지 다듬는 한식 성묘객 한식 다음날인 6일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제주시 가족공동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범초를 하고 있다. 김희민기자

고사리 꺾으러 나섰던 60대 실종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고사리를 캐러 나섰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실종 닷새째인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인근 가시덤굴 속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일 오후 8시쯤 고사리를 채취하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A씨

가)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이용해 A씨 차량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거센세미오름까지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드론 등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거센세미오름 인근에서 A씨의 흰색 포터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공조 수색을 이어나갔고 이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종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모)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모)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공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모, 화분모, 일반모)
하굴 / 팔삭 / 세미늘 / 금굴 / 당유자 / 머름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무병묘목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목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묘목공급)지정업체 (원자정비와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모, 2~5년생 일반모, 포토모, 화분모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향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전문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